

한국 청동기시대 농경의 개시 및 전개

윤 호 필
경남발전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청동기시대 농경의 전개 |
| II. 청동기시대 농경의 개시 | 1. 청동기시대 사회의 발전 |
| 1. 신석기시대의 농경 | 2. 청동기시대 중기의 농경 |
| 2.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 | IV. 맺음말 |

I. 머리말

청동기시대 농경에 대한 연구는 농경도구나 식물유존체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경작유구나 수리시설(水利施設)¹⁾의 조사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작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도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화분분석, 식물규산체분석, 토기압흔 분석, 고지형분석, 고기후 분석 등 농경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자연과학분석들도 함께 연구되면서 농경연구의 폭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아직 농경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단순히 농경활동의 증거를 찾거나 농경방식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일부지만 청동기시대의 사회적 기반으로 농경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본고도 이러한 관점에서 청동기시대의 농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작유구나 식물유체의 세부적인 검토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정리 검토하여 청동기시대 농경의 배경과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청동기시대 농경이 이전 시대에 비해 급속히 확산되고 발전된 요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농경활동의 흔적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신석기시대 전기이나 생계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것은 중기부터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청동기시대 농경의 배경이

1) 수리시설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수리시설 관련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관련 자료의 집성 및 단행본이 발간되면서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11;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되는 신석기시대 농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청동기시대 전기로 이어지는 전환기의 양상을 검토한다. 청동기시대 농경의 개시와 전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²⁾ 청동기시대는 크게 전기, 중기, 후기의 3시기로 구분되는데³⁾, 농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가 농경의 개시 단계이며, 청동기시대 중기가 농경활동이 가장 활발한 농경의 전개 단계로 설정된다.⁴⁾

II. 청동기시대 농경의 개시

1. 신석기시대의 농경

신석기시대 농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렵·채집단계에서 농경으로 변화하는 ‘농경전이(農耕轉移)’의 문제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명확한 해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⁵⁾ 그것은 농경전이가 해당지역의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이론적인 틀로서 설명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신석기시대 농경전이의 경우도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관련연구는 미흡한 편으로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⁶⁾ 따라서 현재로서는 농경활동의 다양한 증거를 중심으로 농경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석기시대의 농경양상은 농경활동의 간접적인 증거인 농경도와 작물유체를 통해 주로 확인된다. 이는 농경활동의 직접적인 증거인 경작유구의 출토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⁷⁾

2) 청동기시대의 문화상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확인되지만 북한지역의 경우 자료의 한계가 있어 세부적인 검토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청동기시대 시기설정은 토기를 중심으로 전기(돌대문토기, 가락동계토기, 역삼동계토기, 혼암리계토기), 중기(송국리계토기, 검단리계토기), 후기(점토대토기)의 3시기를 설정하였다.

4) 청동기시대 농경관련 자료는 최근에 간행된 ‘농업의 고고학’과 ‘청동기시대의 고고학1’에 수록된 집성자료에서 청동기시대 부분을 추려서 정리하여 검토하였다.(한국고고학회편 2013; 이홍중·이희진편 2014)

5) ‘농경전이’는 수렵·채집단계(자원획득 단계)에서 집약적 농경단계(자원생산 단계)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주요 이론으로는 ‘농경우위설’, ‘자원부족설’, ‘사회적 인설’, ‘이데올로기변화설’, ‘수렵채집민-농경민 상호작용설’ 등이 있다.

6) 한국 신석기시대 농경기원에 대한 주장은 ‘이주설(移住說)’과 ‘인구압설(人口壓說)’이 중심이 되어 제기되고 있지만, 하나의 농경전이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경전이에 대한 연구는 이경아(1998, 2005), 이준정(2001), 안승모(2005), 김장석(2009) 등의 연구가 있다.

7) 최근 강원도 고성 문암리에서 신석기시대 발유구가 처음으로 확인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발굴조사보고서와 분석보고서가 간행되어 신석기시대 발유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양상이 파악되었지만, 아직 밭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농경유물과 작물유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2014)

현재까지 확인된 신석기시대의 농경도구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 기경구(起耕具)는 돌도끼, 썰이, 곰배썰이, 따비, 보습 등이 있으며, 수확구(收穫具)는 돌낫, 돌칼 등이 확인되고, 식량처리구(食糧處理具)는 갈돌, 갈판 등이 있다. 기경구는 낫의 형태가 다양하고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일반적으로 보습과 썰이로만 크게 양분하자는 견해가 있으며(임상택 2001:58-59; 하인수 2010:127-135), 이를 모두 석제굴지기로 통칭하자는 의견도 있다(김도현 2008:55). 기경구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땅을 파는 작업도구로서 기경과 개간에 사용되나(김도현 2008:57-59; 지건길·안승모 1983:59-62) 일부 섬이나 해안지역에서는 패류 채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농경도구로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보습도 길이가 50~60cm 정도의 대형을 쟁기로 파악하기도 하지만(박영초 1988:55-56), 사용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이현혜 1998:11). 수확구인 돌낫과 돌칼은 출토사례가 너무 적고 실용성에도 문제가 있어 당시의 보편적인 수확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안승모 1985:69). 식량처리구인 갈돌과 갈판, 고석 또한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갈거나 뺨는 작업에 쓰이는 도구이지만 세부적인 작업 공정에서 곡물의 껍질을 벗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곡물을 파쇄하는 제분(製粉)용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신석기시대의 농경도구로 알려진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농경활동의 증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양상으로 보면 농경활동에 사용되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석기시대 농경활동의 중요한 증거로 생각된다. 특히 농경도구의 세트관계를 시기별로 검토한 연구를 보면 농경도구의 출현빈도가 중기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최종혁 2005:75-77). 이러한 농경도구의 변화는 개별적인 농경활동의 변화와 더불어 신석기시대 농경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신석기시대 작물유체의 종류는 벼, 밀?, 조, 기장, 콩, 들깨, 팥 등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부산 동삼동유적의 유물포함층에서 ‘기장’이 처음으로 출토되었으며, 전기는 조와 팥류가 확인되었다. 작물유체 이외에 토기 압흔 분석에서도 신석기시대 초기와 전기에 조와 기장이 확인된 바 있다(山崎純男 2014:165).⁸⁾ 중기는 기장, 조, 팥 이외에 밀?, 기장, 들깨, 콩, 등이 추가로 확인되며, 이와 더불어 벼도 확인된다. 이는 작물의 종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농경활동이 전기에 비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쌀의 재배와 잡곡류의 증가는 재배작물의 다양성과 재배기술의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기 이후부터는 일부 작물들은 일반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경아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신석기시대 전기는 야생식물 자원(견과류 등)을 활용하였으나 중기가 되면 조와 기장을 재배하였고 후기의 동남부 지역에서는 조와 기장이 주 자원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았다.(이경아 2005:36-40) 따라서 작물유체를 통해 보면, 한국의 농경활동 시작은 부분적이지만 신석기시대

8) 石橋里유적과 東三洞패총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토기의 압흔에서 조와 기장이 확인됨.

조기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농경활동은 신석기시대 중기부터라고 생각된다. 이는 중기부터 농경도구의 출현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의 농경은 취락의 규모나 입지, 농경도구, 출토작물 등으로 보아 발경작이 주가 된 것으로 보이며, 경작형태는 화전경작이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법씨의 출토로 보아 수전경작도 일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신석기시대의 기본적인 생계경제 수단은 수렵, 채집, 어로가 중심이 되며, 농경은 이들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석기시대는 농경활동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정립되고 발전되는 시기로 생각되며, 적어도 중기부터는 농경활동이 생계경제의 중요한 요소로서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한국 신석기시대의 시기별 작물유체⁹⁾

지역	유적명	유구명	시기	작물유체 종류	비고
황해 봉산군	지담리	2호주거지	전기	조 or 피	조 가능성
부산광역시	동삼동	포함층	조기	기장	1호주거지 포함층
경남 창녕군	비봉리	1패층	전기	조	1패층 1립
		1호야외노지	전기	조	1호 1립
		1패층/부석층	전기	조, 기장, 팥류	
부산광역시	동삼동	패층	전기	기장	5-1층
황해 봉산군	마산리	7호주거지	중기	조	동정근거 없음
강원 고성군	문암리	10호야외노지	중기	벼, 기장, 콩속?	
		12호노지	중기	조	
		5호주거지	중기	밀?, 콩속?	
		3-II-13(1)	중기	콩속?	
충북 옥천군	대천리	주거지(1)	중기	쌀?, 법씨?, 보리?, 밀?, 조, 기장	연대, 동정의문
충남 아산시	장재리 안강골	주거지(2)	중기	조, 기장	
경기 화성시	석교리	주거지(1)	중기	조, 기장	보고서미발간
부산광역시	동삼동	1호주거지	중기	조, 기장	조 4,590±100B.P.
		주거지(2)	중기	조, 기장, 들깨	1, 2호주거지
황해 청단군	소경리 2지점	4호주거지	후기	피?	동정의문
평양	남경	31호주거지	후기	조	동정근거 없음
경기 고양시	대화리 성저	토탄층(1지역)	후기	법씨	연대의문
	대화리 가와지	토탄층(2지역)	후기	법씨	연대의문
	주엽리	토탄층(3지역)	후기	식물규산체	동정의문
경기 김포시	가현리	토탄층	후기	법씨, 조	연대의문
경기 시흥시	능곡동	주거지(2)	후기	조, 기장, 팥, 두류	조 4,770±40B.P.
인천 영종도	중산동	21지점	주거지(7)	후기	조, 기장
		23지점	주거지(10)	후기	조, 기장
충북 충주시	조동리	주거지	후기	식물규산체	동정의문

9) 〈표 1〉은 안승모(2013a, 2013b)가 정리한 작물유체 집성표에서 신석기시대 작물유체만을 추려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부산광역시	동삼동	패총	후기	기장	4층
경남 진주시	상촌리 3지구	수혈(8)	후기	조, 기장	
	상촌리 B지구	1호 야외노지	후기	조, 기장	조 4,060±140B.P.
	대평리 어은1지구	야외노지(4)	후기	조, 기장, 야상두류	조 4,030±100B.P
	평거 3-1지구	수혈(9)	후기	쌀(교란?), 밀(교란), 조, 기장, 콩속, 팥	조 4,200±40B.P
		저장혈(2)	후기	조, 콩속, 팥	조 4,175±25B.P
		주거지	후기	조, 기장	조 3,940±20B.P
		야외노지	후기	밀(교란)	
	평거 4-1지구	1, 5호주거지	중기	조, 기장, 콩속, 팥	
		2, 3호주거지	후기	조, 들깨	
		야외노지(1)	후기	밀(교란), 조, 기장	
		구(1)	후기	밀(교란), 조, 기장, 콩속, 들깨	
		수혈(5)	후기	밀(교란), 조, 콩속, 팥, 들깨	
부산광역시	동삼동	패총	말기	기장	교란층, 2층

2.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

1) 전기 사회의 특징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는 생계경제의 변화 뿐 만 아니라 물질문화와 정신 문화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전환기의 문화는 서북~동북지역에서 남으로 확산되는 방향성은 보이지만 대체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난다. 신석기시대 문화와 청동기시대 문화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신석기시대의 문화 전통이 청동기시대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¹⁰⁾ 이중 농경문화는 신석기시대 생계경제의 한 축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어 청동기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신석기시대 농경활동의 양상들이 청동기시대 농경활동에서도 대부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청동기시대의 농경도구가 보다 세분화·규격화 되며, 경작지 조성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점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배작물의 변화가 거의 없고 농경도구의 형태와 조합이 비슷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¹¹⁾

먼저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화양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0) 신석기시대 문화와 청동기시대 문화의 단절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11) 작물을 재배하는 기본적인 농경행위가 비슷하여 유사점이 볼일 수도 있겠지만, 신석기시대 문화와 청동기시대 문화가 서로 단절된 양상이라면 농경민과 농경기술의 차이로 재배작물의 종류나 농경도구는 보다 많은 차이점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화양상

속 성		내 용
취락	규모	소형 > 중·대형
	입지	충적지, 구릉, 산지
	환호	일부 설치(?)
	저장시설	주거지 내부에 위치(개별 저장시설)
주거지	규모	대형
	형태	세장방형, 장방형
	구조	수혈식, 단시설, 노지설치(판석부위석식, 수혈식), 주혈 및 초석사용
	저장시설	내부에 저장공 설치. 대형호에 보관
무덤	지석묘	독립적 배치나 소규모 군집
	석관묘	독립적 배치나 소규모 군집
의례(제사)		적극적인 의례활동은 보이지 않음
생산과 유통		수공업 생산품을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짐.

취락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형태이나 일부 취락은 대규모의 형태로 조성되기도 한다. 취락 입지는 신석기시대 입지유형과 비슷한 충적지, 구릉, 산지 등에 입지하며,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취락형태는 평지형의 경우 강을 따라, 구릉형이나 산지형의 경우는 구릉이나 산사면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되며, 취락 내 주거의 수도 신석기시대 비해 증가한다. 주거지의 규모는 대부분 대형이며,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점차 변화한다. 구조는 수혈식으로 일부 단이 조성되는 경우도 있다. 노지는 판석부위석식 노지와 수혈식 노지가 설치되며, 가장자리에는 저장시설인 저장공이나 대형호가 설치된다. 저장시설은 취락의 공동 저장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주거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주거별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족중심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계경제는 주로 농경과 수렵·채집이 혼합된 형태가 많으며, 이는 신석기시대의 생계경제와 유사점이 있다. 혼합경제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협업의 필요성이 적고 이동성 생활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 취락의 형성은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같은 혼합경제 사회라도 청동기시대 전기는 중·대형의 취락도 일부 형성되며, 무덤군과 경작지의 조성도 이루어지고 있어 신석기시대 보다는 정주성이 매우 강화된 형태이다. 무덤은 지석묘와 석관묘가 설치되거나 자료 상 소수만 확인되며, 배치는 독립적이거나 소군집을 이룬다. 의례활동은 적극적인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생산과 유통에서는 일부 수공업 생산품이 유통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청동기시대 전기는 신석기시대에 비해 취락의 발달이 두드러지며, 기본적인 취락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주성과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작지 확보와 더불어 생계경제를 농경 중심의 급속히 전환하는 모습이다.

2) 농경 형태 및 특징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은 아직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농경의 직접적인 증거인 경작유구가 확인되고 있어 신석기시대에 비하면 보다 다양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 특징

속 성	논	밭
지형적 입지	구릉사면 말단부, 개석곡저, 충적지의 배후습지	구릉정상부, 충적지
유구형태, 배치형태	계단식 논, 소구획 논	주거지와 인접배치
농경지 규모	소·중규모	소규모, 화전경작
구조, 관련시설	논둑, 수구, 수로시설	이랑밭(두둑, 고랑)
생산량	적음(취락내 소비)	적음(취락내 소비)
출토곡물	쌀	쌀, 보리, 밀, 조, 기장, 돌피, 수수?, 콩, 팥, 복숭아, 삼?, 박, 야두, 들깨 등
농경도구	별채구(합인석부), 굴지구(타제석부, 목재 삽), 가공구(편인석부), 수확구(반월형석도, 유경식석도, 석검), 식량처리구(연석, 목재 절구공이, 목재팬이, 고무래)	

논은 재배작물인 ‘벼’의 특성상 배수가 불량하고 주변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게 되는데, 청동기시대 전기에도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어 구릉사면 말단부, 개석곡저, 범람원의 배후습지에 입지한다. 논은 기본 구조는 논둑으로 논면을 구획하고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들이는 다음, 각 논 면에는 수구를 통해 물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청동기시대 전기도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계단식 논과 소구획 논이 확인된다. 논은 외부에는 관개시설인 수로와 취수구가 설치된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논은 대체적으로 소규모로 경작된 것으로 보인다. 밭은 토양 및 지형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다양한 지형에 입지한다. 청동기시대 전기는 주로 주거지 주변에 배치되면서 대부분 소규모 텃밭이나 화전경작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전경작은 구체적인 고고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석기시대부터 나타나는 초기의 농경형태이며(안승모 2005:13-14), 또한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서 유리한 농경형태이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전기에 성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²⁾ 이는 전기의 취락이 구릉에 주로 입지하는 것도 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밭의 구조는 화전밭의 경우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밭의 형태는 두둑과 고랑이 병렬적 늘어선 이랑

12) 안재호는 ‘山地型 聚落’형태를 화전경작의 취락형태로 보았다.(안재호 2000)

밭의 구조이다. 작휴형태는 대부분 두둑을 세워 고랑을 낮게 하는 ‘휴립법(畦立法)’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청동기시대 전기의 재배작물은 쌀, 조, 기장, 보리, 밀, 콩, 팥 등 모두 7종류로 신석기시대의 출토작물과 차이가 없다. 이는 재배작물의 다양성이 신석기시대에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농경도구는 벌채구, 굴지구, 가공구, 수확구, 식량처리구 등 확인되는데 농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체계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석기조성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벌채구, 굴지구, 식량처리구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논경작 보다는 밭경작이 중심이 되며, 나아가 수렵과 채집활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은 신석기시대 보다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지만 아직 성숙한 단계의 농경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경작활동도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화전경작이 중요한 경작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경활동에 의한 식량생산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소비는 외부로 유통하기 보다는 취락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경활동만으로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렵이나 채집, 어로활동도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청동기시대 농경의 전개

1. 청동기시대 사회의 발전

1) 중기 사회의 특징

청동기시대 중기는 송국리 문화의 등장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송국리문화의 범위는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호서·호남지역과 경남지역까지 포함되어 한반도의 남서부지역과 남부해안지역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송국리유형으로 불리는 주거지, 무덤, 토기 등이 확인되어(김길식 1998; 김승옥 2001), 다른 지역과의 구분이 뚜렷하다. 또한 발달된 농경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활발한 경작활동이 이루어져 논경작이 성행하고 대규모의 밭경작지도 조성된다. 따라서 송국리문화의 등장과 확산은 청동기시대 중기의 문화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송국리문화의 분포 범위 이외의 지역은 크게 2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영남지역의 동남해안지역으로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주, 포항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문화양상이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분포범위가 좁고 한정적

13) 굴지구나 벌채구는 화전경작을 포함한 발농사와 관련된 도구로 상정되며(안재호 2000: 51), 식량처리구는 채집된 곡물을 처리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처리구 중 석명, 요석, 고석 등을 건고한 종자를 파쇄하는 도구로 채집활동과 관련된 것을 보는 견해도 있다.(이홍중 1997:9-10)

으로 확인된다. 또한 검단리식토기와 울산형주거지를 지표로 검단리유형으로 불리며 특징적인 문화권을 형성한다. 검단리문화는 동남해안지역으로 들어온 혼암리유형이 진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현식 2006). 다른 한 지역은 송국리문화와 검단리문화 분포범위 외 지역으로 한강 하류역과 강원도의 영동·영서지역, 동남해안지역이 중심이 된다. 이 지역의 중기문화는 기본적으로 전기의 문화양상인 역삼동유형(혼암리유형)의 문화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발전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한식 2006; 김권중 2005). 이렇듯 청동기시대 중기의 문화양상은 송국리 문화가 중심이 된 특징적인 문화권과 전기의 문화양상이 이어지거나 발전된 형태로 변화한 문화양상들의 지역적 특색을 가지면서 발전하는 모습이다.

청동기시대 중기의 문화양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청동기시대 중기의 문화양상

속 성		내 용
취락	규모	중대형) 소형
	입지	충적지, 구릉사면, 정상부
	환호	집중적으로 설치, 이중환호
	저장시설	주거지 외부에 위치(고상가옥 및 저장수혈)
주거지	규모	소형·중형
	형태 및 구조	(장)방형, (타)원형
	저장시설	대형호에 보관
무덤	지석묘	집중적으로 조성. 군집규모가 커지고 형태가 다양함.(열상배치, 연접배치) 대형지석묘 등장(묘역지석묘). 해안지역이나 해안과 연결된 하천변에 주로 입지
	석관묘	집중적으로 조성. 지석묘와 인접해서 설치되거나 별도의 공간에 군집. 위세품(청동기, 옥, 마제석검 등) 부장.
의례(제사)		의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장송의례, 농경의례, 생활의례 등)
생산과 유통		위세품(수공업 생산품 및 잉여 곡물)을 중심으로 활발한 생산과 유통체계 성립.

주거지는 전기의 대형 장방형, 세장방형 주거지가 후기의 소형·중형의 (장)방형이나 (타)원형으로 변화하며, 취락내의 주거지 수도 증가하여 취락의 규모는 전기보다 더욱더 커지고 취락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도 매우 다양해진다. 이는 취락을 주거지가 중심이 되는 가옥집합체로 보는 협의적인 개념에서 인간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모든 유구들(경작지, 도로망, 행위공간, 패총(폐기장), 분묘, 요지, 사회공공 건물지, 제사(의례)장소 등)을 포함한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취락공간은 인간이 일생 보내는 장소로 다양한 성격의 공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한다. 이를 세부속성에 따라 구분하면 생활공간, 저장공간, 의례공간, 무덤공간, 생산공간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속성들의 구성형태에 따라 취락의 성격이 달라진다. 또한 여기에 취락의 규모가 더해지면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된

다. 중기의 취락은 전기에 비해 취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취락의 성격도 다양해지고 전문화된다. 이러한 취락의 다양성은 취락간 교류의 기반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취락의 입지는 구릉과 더불어 충적지형이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며, 이는 농경지의 확보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락관련 주변시설은 전기에는 보기 드문 환호와 저장시설인 고상가옥, 저장혈 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며, 무덤도 주거지와 구별되는 장소에 대규모 군집을 이루며 조성된다. 무덤의 군집형태는 열상배치나 연접배치가 주를 이룬다. 지석묘는 대형화되며, 구조적으로도 다양화 된다. 특히, 다단토광이나 다단개석의 채용, 묘역시설 설치의 보편화 등은 중요한 변화양상으로 볼 수 있다. 석관묘도 군집양상이 두드러지지만, 지석묘와 함께 조성될 경우 별도의 공간에 조성되거나 인접하여 소규모로 설치되는 경향이 많다. 이는 무덤간의 위계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덤배치의 중요한 변화이다. 의례(제사)활동은 전기에 비해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가 활발해지기 때문이다(이상길 2000, 2007). 특히 생활의례, 장송의례, 농경의례, 수변의례 등은 기본적인 의례활동으로서 체계적인 의례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취락의 발전과 다양성으로 취락간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농경을 기반으로 사회가 안정되면서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지고 유통체계가 성립한다. 주요 잉여생산물은 수공업품과 곡물이 중심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2)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평등사회에서 권력과 지위를 획득하려는 개인은 통합과 차별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전략행위, 예를 들면 각종 축제, 제사, 의례행위, 위신재의 통제, 장거리 교역 등을 구사하려고 한다(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의 위계화의 진전은 청동기시대 중기이후부터 대규모 취락 및 경작지가 등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취락이나 분묘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나아가 차별화된 위신재유물이 등장하여 계층사회로의 변화와 지배자의 출현을 가져온다고 본다. 먼저 취락의 계층화는 취락 내 계층화와 취락 간 계층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송만영 2006). 전자는 주거지의 크기, 취락 내 입지(배치), 출토유물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소형 취락에서는 정점의 상위 주거군과 하위의 여러 주거군 등 2단계로 계층화될 것으로 보이나(김범철 2006), 중형이나 대형 취락의 경우는 이보다는 좀 더 복잡한 계층구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즉, 취락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취락 내에서 담당하는 일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창리유적 B지구 취락의 경우 계층화된 4개의 집단을 추출할 수 있는데, 제사 및 의례기능의 최상위 집단, 전업적 토기생산집단으로 농경과 노동

을 부담하는 상위 집단, 자급자족적인 토기 생산과 농경에 노동력을 부담하는 중위 집단, 농경 종사자인 하위 집단이 그것이다(안재호 2004). 또한 취락내 입지의 차별화는 진주 대평리유적 옥방지구에서 잘 확인된다. 옥방유적은 환호가 설치된 취락으로 환호의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주거지의 규모나 밀집형태, 공간구성에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즉, 환호 안쪽과 주변에는 최상위 집단이 분포하고 나머지 지역에 하위집단들이 분포하는 것이다(高旻廷 · Martin T. Bale 2006). 이러한 계층화의 진전은 점차 최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들과의 차별성을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최상위 집단은 정치적 전략행위로서 하위집단들과 구별되는 주거지의 입지나 규모, 무덤의 크기, 차별화된 위세품에 집중하게 되며, 나아가 취락 간 계층화의 기반이 된다. 후자인 취락간의 계층화는 취락의 규모와 취락구조에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취락은 규모에 따라 대형취락, 중형취락, 소형취락으로 구분되며, 취락의 세부속성에 따라서는 생활공간, 저장공간, 의례공간, 무덤공간, 생산공간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취락구조는 취락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요소가 되며 나아가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되어 취락간의 계층화를 파악할 수 있다. 취락간의 계층화는 남강유역에 분포하는 취락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남강유역의 취락들은 남강을 따라 넓게 분포하며, 취락의 규모나 구성요소들이 다양하다. 남강유역의 중심취락은 진주 평거동유적, 진주 대평리유적, 산청 하촌리유적 등으로 넓은 충적지에 입지하며, 대규모 복합취락의 성격을 갖는다. 취락의 구조는 대부분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기반과 구조가 안정적이다. 또한 대규모의 경작지와 무덤군 조성, 수공업품이나 곡물 생산을 통해 주변취락과의 교역이 활발해진다. 주변취락은 중·소형의 규모로 소규모 복합취락이나 전문기능 취락의 성격을 가진다(고민정 2004, 2010; 배덕환 2009; 최섫별 2013; 윤호필 2013b). 이러한 취락간의 양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청동기학회 2009). 따라서 취락간의 계층화는 상위 취락인 중심취락과 하위취락인 소규모 복합취락이나 전문기능 취락의 차별화로 인한 계층화가 점차 가속화 된 것으로 보인다.

무덤의 계층화는 취락의 발전에 따른 계층화의 진전으로 개인 간의 계층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즉,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내용 및 조합을 통해 무덤을 조성한 개인 간의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무덤의 규모는 무덤축조에 동원된 노동력의 양과 질을 추정할 수 있고, 부장품은 단순히 피장자를 위한 장송의례품에서 벗어나 위신재로서 상징성과 희귀성을 통해 피장자의 권위를 표현한다. 청동기시대 무덤은 전기부터 활발히 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전기의 무덤자료가 적어 구체적인 비교가 어렵다. 중기는 무덤의 축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다양한 형태의 무덤들이 조성된다. 이러한 무덤축조의 증가는 취락 및 농경활동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덤 계층화의 양상은 기본

적으로 무덤종류, 무덤규모, 무덤입지, 부장유물 등을 통해 계층화를 파악할 수 있다¹⁴⁾. 청동기시대 무덤은 신석기시대 묘제와 달리 주로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되는데, 이는 많은 노동력과 기술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한국 청동기시대 무덤은 기본적으로 집장묘가 아닌 개인묘로서 개인의 영향력을 표현한다. 따라서 무덤은 계층화를 검토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중기의 무덤은 지역별로 다르게 조성되는데, 호서지역과 전남 남해안지역은 부장품(위세품)을 통한 무덤간 위계가 잘 나타나지만 영남 남해안 지역은 부장품 보다는 무덤의 규모를 통해 위계를 표현한다(배진성 2006). 이는 무덤간의 차별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무덤축조의 배경이 되는 취락의 성격이나 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남해안지역에서 확인되는 대규모의 묘역지석묘(사천 이금동유적, 마산 진동리유적, 창원 덕천리유적, 김해 율하리유적, 김해 구산동유적 등)들은 외형적인 형태나 규모는 다른 무덤들을 압도하고 있어 계층화의 정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계층화된 무덤들은 취락 계층화와 더불어 청동기사회가 복합사회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청동기시대 중기의 농경

1) 농경 형태와 특징

청동기시대 중기의 농경은 앞서 살펴본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진전되고 확산된다. 먼저 청동기시대 중기의 농경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청동기시대 중기의 농경 특징

속 성	논	밭
지형적 입지	구릉사면 말단부 개석곡저, 충적지의 배후습지	충적지, 구릉정상부, 개석곡저
유구형태, 배치형태	계단식논, 소구획논	주거지와 인접해 배치하거나 별도의 공간에 경작지 조성
농경지 규모	소규모, 중·대규모(?)	대규모 경작지
구조, 관련시설	논둑, 수구, 수로, 저수지, 구(수로시설의 다양화)	이랑밭(두둑, 고랑), 수혈, 경계구, 집석
생산량	자급자족 및 잉여물 생산(추정)	자급자족 및 잉여물 생산
출토곡물	쌀	쌀, 보리, 밀, 조, 피, 기장, 콩, 팥, 야두, 들깨, 복숭아, 박, 외(참외?), 대마, 갯?, 가래 등

14) 청동기시대 무덤의 종류는 지석묘, 석관묘, 석개토광묘, 목관묘, 토광묘, 옹관묘 등이 있다. 이중 규모가 크고 구조적으로 복잡한 형태인 지석묘는 다른 무덤들 보다 우월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입지형태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지석묘들은 상위집단의 무덤으로 생각된다. 또한 나머지 무덤들 중에서도 우월한 입지나 위신제의 유물(비파형동검, 석검, 옥 등)의 부장을 통해 차별화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농경도구	별채구(합인석부), 굴지구(타제석부, 목재 삽), 가공구(편인석부), 수확구(삼각형 석도, 석검), 식량처리구(연석, 목재 절구공이, 목재괘이, 고무래) 수확구 감소, 굴지구, 별채구 감소, 가공구 증가, 식량처리구 감소
------	--

논은 개석곡저나 중소하천 충적지의 배후습지에 주로 입지하며,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성된다. 논 의 형태와 구조는 전기와 비슷한 논둑과 수구를 갖춘 계단식논과 소구획논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관개시설은 구나 수로, 저수지 등의 관련시설 모두가 확인되어 적어도 중기부터는 논농사 체제가 완비되어 발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관개시설이 확인된 유적은 밀양 금천리유적, 울산 옥현유적, 울산 발리유적, 울주 남천유적, 대구 동천동유적, 논산 마전리유적, 부여 구봉리유적, 부여 송학리유적, 보령 관창리유적, 안동 저전리유적, 창원 진동유적, 창원 망곡리유적 등이 있다. 이중 안동 저전리유적에서는 논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농경과 관련된 ‘저수지(貯水池)’가 확인되어(이한상 2006) 논농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밭은 청동기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경작방법으로서 경작면적이나 생산량으로 볼 때 농경활동의 중심을 이룬다. 밭의 입지는 전기에 비해 다양해지고 확대된다. 배치형태는 주로 주거지와 인접해서 배치되지만 일부는 별도의 전용공간에 경작지가 조성된다. 또한 경작지의 규모도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다양하게 조성된다. 밭의 구조는 대부분이 두둑과 고랑을 갖추 이랑밭이지만 일부는 소형수혈균이나 구로 구획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밭과 밭의 구분은 경계구로서 구분하며, 경계구에는 일정 간격으로 돌을 배치하기도 한다. 내부에는 수혈이나 집석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중 집석은 의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밭 작물은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청동기시대의 기본적인 곡물조성은 벼+잡곡(조, 기장)+맥류(밀, 보리)+두류(콩, 팥)의 형태로 ‘무문곡물조성’으로 지칭된다. 또한 여기에 복숭아, 박, 외(참외?), 들깨 등이 추가되어 보다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문곡물조성이 전기에 확인은 되지만 이들 곡물들이 개별적으로 전승 또는 유입되어 한반도에서 곡물조성이 완성된 것인지, 외부에서 곡물조성이 완비되어 세트로 전래된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안승모 2014:96). 전체적으로 보면 청동기시대의 농경은 전기부터 기본적인 곡물조성을 갖춘 상태에서 재배기술과 경작지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농경도구는 전기와 출토량을 비교해 보면 다양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준호(2014)의 연구를 보면 수확구는 삼각형석도가 새롭게 등장하지만 전체적으로 출토량이 감소하여 수확방법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굴지구와 별채구도 감소하는데, 이들 도구가 밭농사와 관련된 것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밭농사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논

농사와 관련 있는 가공구는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논농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송국리 문화의 등장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기가공구는 증가하고 반면 식량처리구는 감소한다. 농경도구의 이러한 변화는 논농사의 확산과 밭농사의 상대적 감소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논농사 집약화에 의한 생산량의 증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곡물 생산량의 증가는 생계방식 가운데 농경의 비중을 높였을 것이며, 이는 식량처리구의 감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석기가공구의 증가에 대해서는 석기의 수요가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교역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를 생각해 본다면 초기 복합사회로 진입한 청동기시대 중기 사회의 정치경제적 요소로 파악(김범철 2006)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경지이용 방식

농경지의 조성은 많은 노동력과 함께 발달된 도구와 토목기술이 필요하다. 청동기시대는 석기를 중심으로 목기, 골자기, 청동기가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들 도구만으로는 적극적인 형질변경이 어렵다. 따라서 경작지는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에 조성을 하든지, 원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성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의 주요 도구로는 점토가 많고 할석이나 쇠설물이 많이 포함된 곡간평지나 개석곡저 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질성분이 많은 충적지가 농경지로서 선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확인된 유적들에서도 충적지의 비중이 높고 경작지의 범위도 넓게 확인되었다. 즉, 청동기시대의 경작지 조성은 작물조건에 맞는 지형과 토질을 찾아내어 원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최소한의 노동력과 시간으로 경작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논은 대부분 입지형태가 한정적이고 점토가 많이 포함된 지형으로 형질변경의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원지형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논은 원지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소구획 논이나 폭이 좁은 계단식 논으로 조성하였다. 이는 청동기시대 논 경작지 조성방식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밭은 논에 비해 지형조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지형에 따라 경작지의 규모가 달리진다. 구릉사면이나 개석곡저에 입지한 밭은 대체적으로 소규모의 형태로 조성되며, 충적지에 입지한 밭은 자연제방의 양쪽사면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형태로 조성된다. 특히, 충적지에 입지한 밭은 경작지가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밭으로 구획되어 조성된다. 이렇게 구획된 밭이 개별적인 소유의 밭인지 공동소유의 밭인지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형태를 보면 이랑의 길이가 길고 정연하다. 따라서 적어도 청동기시대 중기단계에는 밭경작지 조성에 일정한 축조플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농경양상을 종합해 보면 청동기시대는 논 경작지 보다는 밭 경지에 대한 조성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도구체계 및 취락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즉, 당시의 도구체계로는 논 경작 보다는 밭 경작이 보다 유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대규모의 취락들이 충적지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식량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당시의 도구체계 및 식량생산 체계로는 밭 경작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식량생산 방법으로, 밭 경작지의 확대를 통해 식량생산 기반을 충족하였을 것이다.¹⁵⁾

농업기술의 발달과정에서 경지이용방식의 변화양상은 휴한단계(休閑段階)에서 연작단계(連作段階)로의 전환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식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농경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농경은 경지이용방식의 발전 단계로 보았을 때 5년 정도의 휴경이 필요한 중기휴경 단계에 속한다(윤호필 2013a:177).¹⁶⁾ 이는 지력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경지이용방식은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경작활동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청동기시대 경작활동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력회복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가장 적극적인 지력회복 방법은 ‘시비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시비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기는 고려시대 말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청동기시대의 농경활동 정도를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가졌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 예로 지력회복을 위해 이미 불 지르기와 고랑과 두둑의 교대경작 등 다양한 지력보강 방법을 알고 있었다(이상길 1997:185). 따라서 이는 시비법의 존재를 몰라서라기보다는 당시의 도구체계나 인구밀도, 재배작물 등의 경작상황으로 인해 선택적으로 다른 형태의 지력보강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지력보강을 위한 시비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물 재배기간이나 전후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의 증가 요인이 된다.¹⁷⁾ 또한 시비가 이루어지면 작물도 잘 자라지만 그와 더불어 잡초의 성장도 두르러지게 되어 재배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비법의 사용은 많은 노동력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경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는 아직 농경활동에 충분한 노동력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작물인 조, 기장, 수수 등이 벼의 생육기간과 같기 때문에 노동력은 더욱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이현혜 2010:382-284). 따라서 청동

15) 청동기시대에는 휴한농법으로 연속적인 작물재배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경작지를 보다 넓게 확보하여 재배과정에서 휴경지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16) 경지이용방식의 발전단계에 대해서는 이현혜(2010)에 의해 정리된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Ester Boserup의 경지이용방식 발전단계인 장기휴경(長期休耕, Forest Fallow)-중기휴경(中期休耕, Bush Fallow)-단기휴경(短期休耕, Short Fallow)-일년일작(1年 1作, Annual cropping)-다모작(多毛作, Multicropping)을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신석기시대에는 장기휴경(10년 이상),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에는 중기휴경(5년 이하)에 해당된다.

17) 시비의 시기는 2가지로 나누는데, 파종 또는 이식할 때 주는 것을 기비(基肥, 밑거름)라고 하고, 생육 도중에 주는 것을 추비(追肥, 증거름)라고 한다. 추비는 1번만 주는 경우와 여러 번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다.

기시대에 시비법이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농경의 발전 및 확산

청동기시대 중기의 농경은 전기에 비해 급속히 발전하고 확산된다. 이는 생계경제 활동이 농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크게 보면 사회구조의 변화 맞물려 발전되고 확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청동기시대 중기 문화를 대표하는 송국리문화의 등장과 확산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논농사를 기반으로 발달된 농경기술을 가진 송국리문화가 취락의 발전과 더불어 농경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농경이 기반이 되는 농경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송국리문화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중기 단계부터는 농경활동이 두드러지지만 현재의 경작유구 자료만을 보면 대체적으로 발전과 확산이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시기의 작물유체의 범위를 보면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농경활동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중기단계부터는 농경활동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 있다. 먼저 단순히 생각해 보면 농경활동의 급속한 증가는 곡물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곡물수요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이는 수렵, 채집, 어로의 활동만으로는 식량 해결이 부족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식량을 집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경활동이 더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경활동은 식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수요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농경의 발전과 확산은 ‘곡물수요의 증가’ 원인과 배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인구의 증가’이다. ‘식량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식량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식량을 소비하는 인구의 증가를 나타낸다. 인구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취락의 정주성이 강화되고 사회가 안정적일 때 인구의 증가는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중기의 사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취락의 규모가 커지고 취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생겨나면서 정주성은 보다 강화되고 사회구성원들이나 집단간의 계층화가 시작되면서 사회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물론 무기류의 증가나 환호의 설치 등을 통해 이 시기가 갈등적 사회라는 의견도 있지만¹⁸⁾ 전체적으로 보면 취락의 수가 전기에 비해 현격히 증가하고 취락간의 교류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

18) 환호, 목책렬 그리고 수렵구의 증가를 무기류의 증가로 이해하여 이들을 전쟁관련 자료(손준호 2011)로 이해하거나 갈두유적 출토 수렵구의 조성비의 예를 통해 영역갈등으로 상정(이종철 2012)하기도 한다.

시기나 지역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량 수요의 가장 큰 원인인 ‘인구증가’는 취락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이 가속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변화가 식량 소비를 촉진시키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농경기술의 발달’이다. 농경의 발달은 단지 식량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기에는 농경기술의 발달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농경활동은 땅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생명체를 생산하는 것으로 수공업 생산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즉, 경작지 조성부터 입지, 토양, 기후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작에서는 정지 및 파종부터 수확 후 잔여물을 처리하는 과정까지 작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윤호필·고민정 2006). 또한 일정기간 동안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며,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생계경제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작물재배가 실패할 경우 식량 확보에 많은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농경기술의 발전이 농경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농경활동의 위험성’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의 농경기술은 앞서 살펴본 대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전기를 거치면서 축적된 농경기술을 바탕으로 송국리문화의 발달된 농경기술이 도입되어 이전 시기보다 월등한 농경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농사를 통한 집약적 경작과 대규모 밭 경작지의 조성은 식량 생산의 증대와 더불어 보다 안정적인 식량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된 농경기술을 바탕으로 중기단계부터 농경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취락간 네트워크를 통한 농경의 확산이다. 취락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취락의 발달로 인한 취락간의 계층화를 통해 파악된다. 즉,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구분은 상호교류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심취락은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복합취락으로서 대부분의 취락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며, 주변취락간의 교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주변취락은 중·소형 규모의 복합취락으로서 전문기능 취락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경작지 중심취락을 제외하면 모두 소비취락이 된다.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 지역이 남강유역의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이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표 6>을 보면 중심취락은 취락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면서 남강유역의 상위집단으로 성장한다. 이는 대규모 경작지를 통한 곡물의 대량생산이 중심취락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경작을 통한 쌀의 생산은 주변취락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라 하겠다. 주변취락에는 의례중심 취락 또는 무덤중심 취락 같이 특수한 기능을 하는 취락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의 복합취락으로서 곡물을 생산하기 보다는 소비하는 취락들이다. 물론 각 취락에서는 개별적인 생산활동은 이루어지겠지만, 잉여생산물을 생산하거나 상호 교류할 정도의 생산량은 못되었던 것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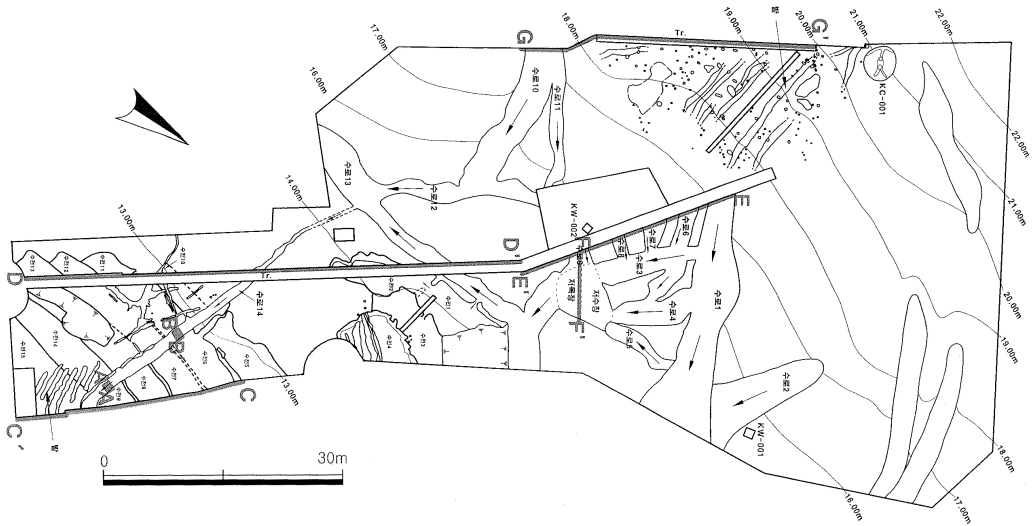
인다(윤호필 2013:116). 이러한 곡물의 생산과 소비 네트워크는 수공업품의 생산과 소비 네트워크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청동기시대 상위집단이 그들 자신의 권력을 창출하고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초보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위세품의 생산과 분배 및 농경 잉여물의 통제를 들고 있다(고민정 · Martin T. Bale 2008; 윤호필 2010). 이러한 수공업품에는 반전업적인 전문 공인집단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적색마연토기, 마제석검, 옥 장신구 등이 해당되며, 이들의 생산과 교환, 분배를 통해 취락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고민정 · Martin T. Bale 2008; 田田愼矢 2007). 따라서 농경의 확산은 기본적으로 중심 취락과 주변취락간의 네트워크망을 통해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취락의 발달로 인한 네트워크망의 강화는 농경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된 것을 보인다. 또한 활발한 교류의 성과는 지역단위를 넘어서 원거리 네트워크망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남강유역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특징(윤호필 201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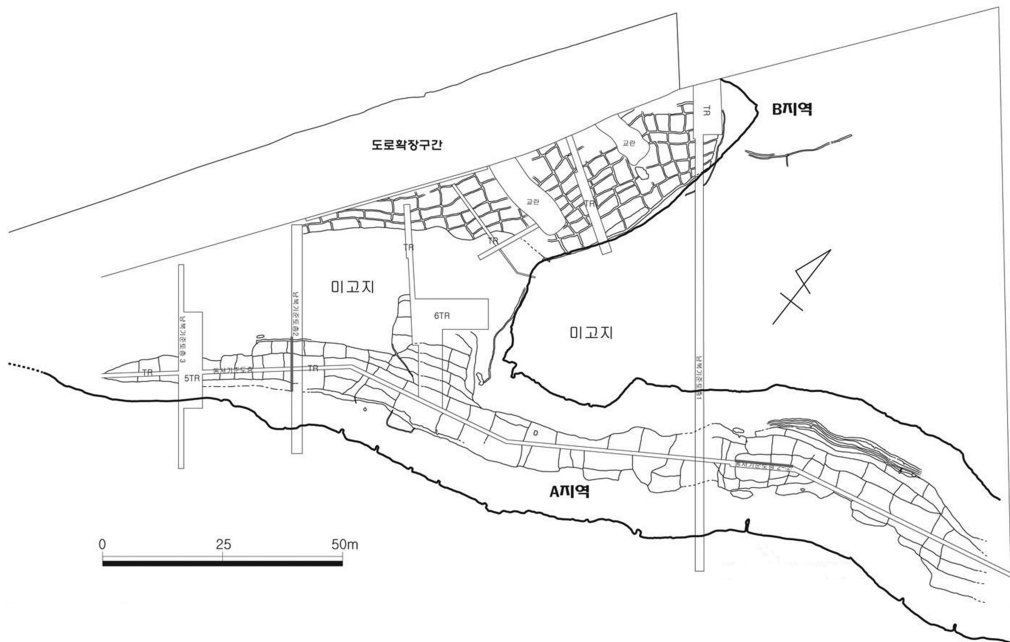
취락유형		특징	곡물의 생산적 소비적 관점
중심 취락	대규모 복합취락	· 구성요소 : 생활유구+저장유구+의례유구+무덤유구+경작유구 · 넓은 충적지에 입지하며, 배후에 낮은 구릉이 인접해 있음. · 공간구분 : 충적지의 세부지형(자연제방, 배후습지)에 따라 1차적인 공간구분(생활공간과 곡물 생산공간)이 이루어지며, 생활공간내에서 다시 2차적인 공간구분(무덤공간, 저장공간, 집단 의례공간, 광장 등)이 이루어져 취락구성이 완성됨. 공간구분이 뚜렷함. · 유구의 수가 많고 다양함. · 생산활동(곡물생산, 수공업품(토기, 석기, 옥)생산)의 활발함 · 광장배치. 집단적 의례활동 · 대규모 분묘조성 · 환호설치. 취락내에서도 중심지역 설치	대규모 생산취락
	경작지중 심 취락	· 충적지 입지(경작에 유리한 지역) · 경작지가 중심이 되며, 주거지는 경작지의 주변에 소수만 배치됨 · 농경관련 의례. 주로 밭경작 이루어짐	생산전문 취락
	무덤중심 취락	· 충적지 및 구릉사면 입지 · 장송의례, 분묘제사와 관련된 활동 · 무덤군이 중심이 되며 주거지는 주변에 소수만 배치됨. · 무덤의 수가 주거지의 수보다 많음.	소비전문 취락
	의례중심 취락	· 충적지 입지(지류의 소하천변) · 주거지는 의례유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소수만 배치됨. · 의례활동이 중심.	소비전문 취락
	소규모 취락	· 구릉사면이나 충적지에 입지 · 소수의 주거지가 중심이 되며, 다른 생활유구의 수는 매우 적음.	소비전문 취락
주변 취락	소규모복 합 취락	· 충적지 입지 · 소수의 주거지, 무덤, 생활유구가 함께 배치됨	소비전문 취락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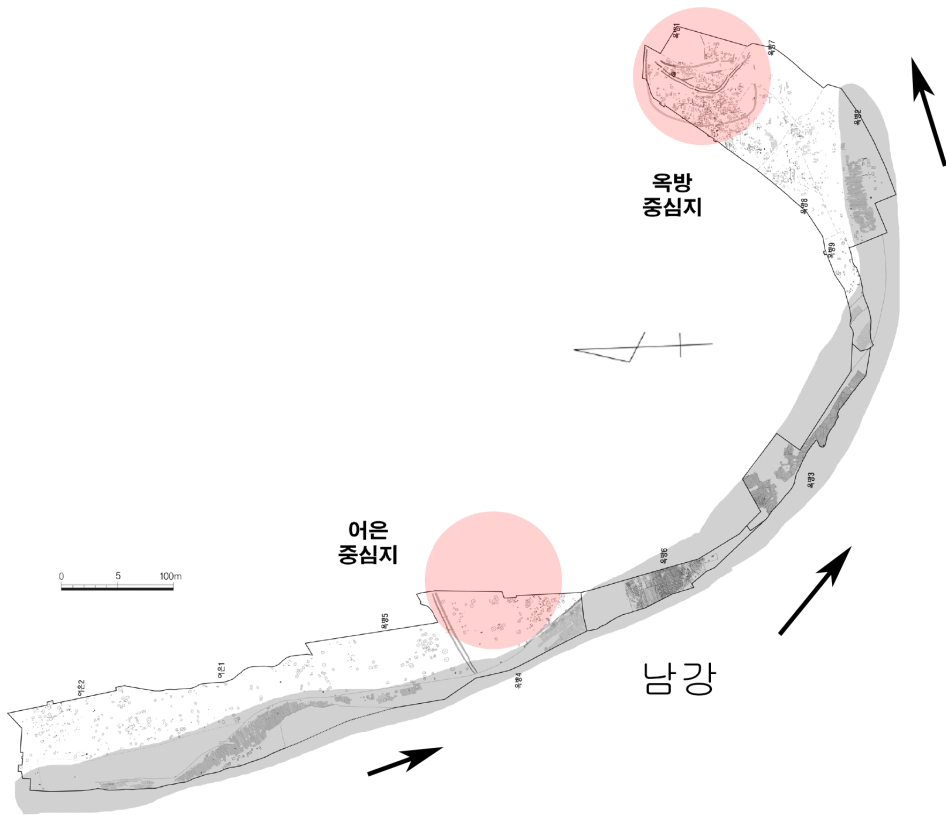
이상 청동기시대 농경의 개시와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동기시대 농경의 개시기인 전기 농경은 신석기시대에 시작된 농경전통이 어느 정도는 이어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양상과 함께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성숙한 단계의 농경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경작활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작방법도 밭경작이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릉을 중심으로 화전경작이 중요한 경작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경활동에 의한 식량생산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소비는 외부로 유통하기 보다는 취락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경활동만으로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렵이나 채집, 어로활동도 중요한 생계경제 수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중기가 되면 송국리문화의 등장과 함께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생계경제는 농경을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로 변화한다. 사회구조는 취락과 무덤, 위세품에서 위계화의 진전이 이루어져 계층사회로 분화되고 지배자의 출현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취락의 발전과 함께 농경의 발달도 가속화하여 경작의 다양성 및 대규모의 경작지 조성으로 이어진다. 즉, 논농사의 확대는 집약적 농경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대규모 밭경작지 조성과 재배작물의 다양성은 농경활동의 안정성과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또한 농경잉여생산물은 취락간의 네트워크망을 통해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농경의 확산을 가속화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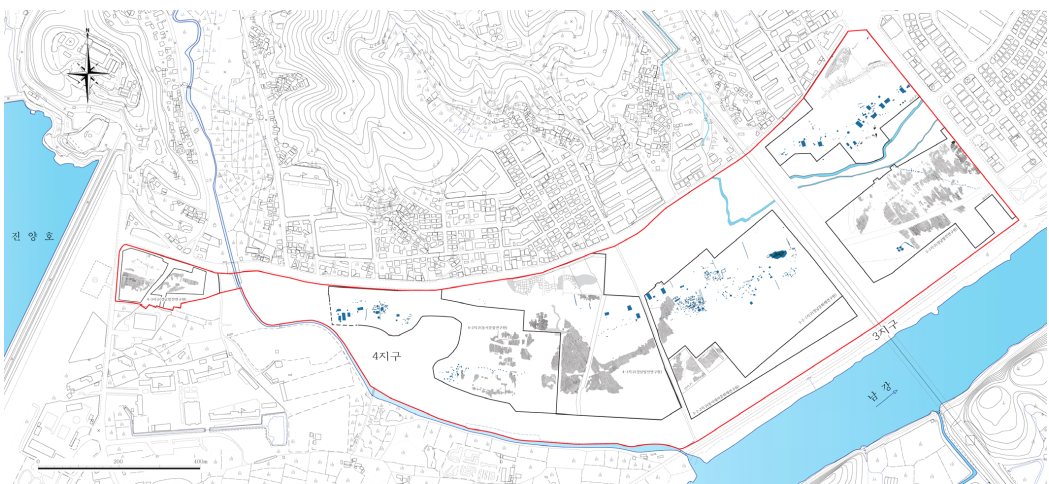
〈도면 1〉 논산마전리유적 청동기시대 논



〈도면 2〉 진주 평거3-1지구 유적 청동기시대 논



〈도면 3〉 진주 대평리유적 청동기시대 취락



〈도면 4〉 진주 평거동유적 청동기시대 취락

〈참고문헌〉

- 곽종철, 2010,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의 수리시설」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리시설』, 서경문화사.
- 고민정, 2004, 『南江流域無文土器文化의變遷』, 慶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_____, 201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구조와 성격」 『嶺南考古學』54, 영남고고학회.
- 고민정 · Martin T. Bale,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생산과 사회분화-진주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韓國靑銅器學報』第2號, 韓國靑銅器學會.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高城 文岩里遺蹟II 發掘調査報告書』.
- _____, 2014, 『高城 文岩里遺蹟II 分析報告書』.
- 국립중앙박물관, 2006, 『한국 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 집성』.
- 金權中, 2005, 『北漢江流域 靑銅器時代 住居址研究』, 擔國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金吉植, 1988, 「夫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 『考古學誌』第9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김도현, 2008, 「선사·고대의 농구 조합과 생산력의 변화-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보』47, 영남고고학회.
- 金範哲, 2006, 「忠南地域 松菊里文化의 生計經濟와 政治經濟-農業集約化 관련 설명모형을 통해 본 水稻作」 『湖南考古學報』24輯, 湖南考古學會.
- 金承玉, 2001, 「錦江流域 松菊里型墓制의 研究-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제45집, 한국고고학회.
- 김승욱, 2006,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 김장석, 2009, 「농경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이해」 『선사농경연구의새로운동향』, 사회평론.
-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5-1호, 中部考古學會.
- 김현식, 2006,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정과 출현」 『한국상고사학보』54권, 한국상고사학회.
-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11, 『고대 동북아시아의 水利와 祭祀』, 학연문화사.
- 박영초, 1988, 『조선 인민경제사(원시-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 배덕환, 2009, 『嶺南 南部地域 靑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 배진성, 2006, 「無文土器社會의 威勢品 副葬과 階層化」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 山崎純男, 2014, 「토기에서 관찰되는 동·식물산-토기의 압흔에 대한연구」 『청동기시대의고고학1-인간과환경-』, 서경문화사.
- 孫俊鎬, 2008, 「석기 조성비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경제」 『한국청동기학보』3, 한국청동기학회.
- 손준호, 2011, 「청동기시대 전쟁의 성격」 『고고학』10-1.
- _____, 2014, 「도구의 사용과 생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1-인간과 환경-』, 한국고고환경연

- 구소 학술총서12, 서경문화사.
- 송만영, 2006,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 安承模, 1985, 「韓國半月形石刀의 研究-發生과 變遷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5, 「韓國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農耕研究의 現狀과 課題」 『韓·日新石器의 農耕問題』, 第6回新 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發表資料集, 韓國新石器研究會·九州繩文研究會.
- _____, 2013a, 「식물유체로 본 시대별 작물조성의 변천」 『농업의고고학』, (주)사회평론.
- _____, 2013b, 「부록1」 『농업의고고학』, (주)사회평론.
- _____, 2014, 「작물」 『청동기시대의 고고학1-인간과 환경-』,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서경문화사.
- 안재호,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43, 韓國上古史學會.
- 우리문화재연구원·수리토목연구회, 2014, 『水利·土木考古學의 現狀과 課題』.
- 윤호필, 2010, 「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 『경남연구』제3집,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 _____, 2013a, 「경작유구를 통해 경지이용방식의 변천연구」 『농업의고고학』, (주)사회평론.
- _____, 2013b, 「경작유적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남강유역의 경작유적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생산과 소비적 관점에서 바라 본 경제활동』, 제7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청동기학회.
- 윤호필·고민정, 2006, 「발유구 조사법 및 분석방법」 『야외고고학』창간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이경아, 1998, 「古民族植物學의 研究方向과 韓國에서의 展望」 『嶺南考古學』23,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5, 「植物遺體에 基礎한 新石器時代 ‘農耕’ 에 대한 觀點의 再檢討」 『한국신석기연구』10, 한국신석기학회.
- 李相吉, 1997, 「진주대평리 전작지의 구조와 의의」, 『호남고고학의 제문제』, 제2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 _____, 2000, 「青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의 研究」,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7, 「祭祀를 통해본 勸力의 發生」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사회평론.
- 이준정, 2001, 「수렵·채집경제에서 농경으로의轉移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嶺南考古學』28, 嶺南考古學會.
- 이종철, 2012, 「담진강유역 송국리형주거의 특징과 편년」 『湖南考古學報』42, 湖南考古學會.
- 李漢祥, 2006, 「青銅器時代의 灌溉施設과 安東 苧田里遺蹟」 『한·중·일고대수리시설비교연구』.
- 李賢惠, 1998, 「韓半島 青銅器時代의 經濟的 背景-細形銅劍文化期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 56, 韓國史研究會.
- , 2010, 「토지활용방식을 통해 본 한국고대 농업기술의 발전과정」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서경문화사.
- 이형원, 2009, 「韓國 靑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이홍중, 1997, 「韓國 古代의 生業과 食生活」 『한국고대사연구』12.
- 이홍중·이희진편,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1-인간과 환경-』,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서경문화사.
- 임상택, 2001, 「중서부 신석기시대 석기에 대한 초보적 검토 I-석기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창간호, 한국신석기학회.
- 庄田愼矢, 2007, 「南韓靑 銅器時代의 生産活動과 社會」, 忠南大學校大學院 考古學科考古學專攻 博士學位論文.
- 池健吉·安承模, 1983, 「韓半島 先史時代 出土 穀類와 農具」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博物館 開館 特輯, 京畿大學出版部.
- 최선헌, 2013,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연구』,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최종혁, 2005, 「경남 남부지방 농경에 대한 연구-석기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10, 한국신석기학회.
- 하인수, 2010, 「범방유적의 석기검토」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립20주년 기념논문집』부산대학교고고학과.
- 한국청동기학회, 2009, 「청동기시대 중심취락과 취락 네트워크」 취락분과 제2회 워크숍 발표요지.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한국고대의수전농업과수리시설』, 서경문화사.
- 한국고고학회편, 2013, 『농업의고고학』, (주)사회평론.